

Implant placement and provisionalization of maxillary anterior tooth

유민경*, 응승민, 설은주, 계승범, 이영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의료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부분 무치악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임플란트의 사용은 상당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심미적으로 중요한 전치부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인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은 치아 발거 후 2-3개월의 치조계 remodeling 기간과 임플란트 식립 후 load를 가하지 않는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긴 치료 기간과 healing 기간 동안 가철식 보철물의 장착은 환자들에게 불편감을 안겨주고, 치아 발거 후 연조직과 경조직이 상실되어 심미적인 치료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발치 후 즉시 매입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발치와의 healing potential을 이용하여 osseointegration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치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immediate implant의 조직학적소견과 성공률이 발치가 치유된 후 식립된 임플란트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후 implant-supported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을 통해 최종 보철물을 위한 soft tissue contouring이 가능하다.

즉 상악 전치부에서는 immediate implant 식립 후 provisional implant restoration을 실시하여 치아 발거 후 경조직과 연조직을 보존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치료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증례에서는 외상을 입은 상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이에 따른 provisional restoration을 시행하였다.